한국영화 100년 숙원 풀었다 … 국제적 위상 높아질 것

봉준호 '기생충' 칸 황금종려상 수상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고 권위
도전 19년 만에 최고상 트로피
봉준호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라

봉준호 감독이 올해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으면서 마침내 한국영화계 숙원이 풀렸다.

한국영화는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으로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처음 진출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칸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은 것도 2010년 이창동 감독 '시'(각본상) 이후 9년 만이다.

영화계는 이번 수상으로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 감독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영화 100년…황금종려상 갈증 풀었다

한국영화는 그동안 칸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작을 냈다. 2002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2007년 '밀양'(이창동 감독)의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고 2009년 '박쥐'(박찬욱)는 심사위원상, 2010년 '시'(이창동)는 각본상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아 수상 갈증은 계속됐다.

올해는 봉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공개된 이후 호평이 쏟아지면서 여느 해보다 수상 기대감이 높았다. 작품성 자체도 뛰어난 데다, 칸 영화제가 좋아하는 가족영화이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환경이 다른 두 가족을 통해 빈부격차 문제 등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풍성한 아이디어가 만들어내는 디테일, 각본의 완성도, 흥미로운 캐릭터 구축 등 봉 감독의 장기가 더욱 정교하게 발휘됐다"면서 "봉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영화 경력의 정점에 있고 앞으로도 걸작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단 9명 중 8명이 감독인 점도 수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화계 관계자는 "감독들이 깊이 있는 영화 읽기를 통해 봉 감독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봉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거장 감독 대열에 오르게 됐다. 켄 로치, 마이클 무어, 라스 폰 트리에, 쿠엔틴 타란티노, 로랑 캉테 등이 역대 황금종려상 수상자들이다.

한국영화 위상 역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한국영화는 2000년대를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주목할 만한 활약상을 펼쳐왔지만,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나오지 않아 2% 부족한 느낌을 줬다"면서 "이번 수상으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결정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칸 영화제는 어떤 곳

칸 영화제는 베네치아, 베를린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힌다.

당초 베네치아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 1946년 출범했으나, 지금은 3대 영화제 가운데 최고권위를 인정받는다. 올해 72회째로 해마다 프랑스 남부지방 칸에서 열린다. 칸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볕, 쪽빛 바다 등 주변 환경이 매력적인 휴양도시라는 점이 고려됐다.

칸 영화제는 처음에는 최고상을 그랑프리(대상)라고 했으나, 1955년부터 그 이름을 2등 격인 심사위원대상에 넘겨주고 황금종려상이란 이름으로 시상한다. 베네치아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처럼, 영화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다. 종려나무는 칸에서 흔히 보는 나무로, 칸 영화제 로고인 종려나무 잎사귀는 프랑스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장 콕토가 디자인했다.

칸 영화제는 처음에는 프랑스 영화의 자존심을 내세워 작품성 강한 유럽 영화를 주로 상영했다. 미국에서도 작가주의 성향이 강한 감독들만 초청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할리우드 상업영화에도 문호를 개방했고, 요즘에는 할리우드 톱스타들 모습도 자주 본다.

칸 영화제는 아시아 영화에도 일찍부터 주목해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와 이마무라 쇼헤이,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중국의 천카이거와 왕자웨이 등이 이곳을 통해 세계적인 감독으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이마무라 쇼헤이는 1983년 '나라야마 부시코'와 1997년 '우나기'로 황금종려상을 두 차례나 받았다. 지난해에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가져갔다. /연합뉴스

영광을 배우 송강호에게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폐막 포토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상패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예술성·대중성 모두 갖춰 … 섬세한 연출 '봉테일' 별명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

봉준호(50)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진출 다섯번 만에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다.

봉준호 영화는 예술성과 대중성(흥행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매 작품 개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회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담아내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두루 얻었다.

특히 그는 섬세한 연출로 '봉테일'이라 불린다. 대사나 세트는 물론 소품, 배우들의 손동작 하나에도 나름의 의미를 담기 때문이다. 정작 그는 그 별명을 싫어한다고 한다.

봉 감독은 연세대 사회학과와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다. 16㎜ 단편영화 '프레임 속의 기억'과 '지리멸렬'이 1994년 밴쿠버와 홍콩영화제에 초청되며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는 '살인의 추억'(2003)부터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들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고, 당시 전국 525만명을 동원했다.

2006년 선보인 '괴물'은 봉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한 획을 그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블록버스터 탄생의 신호탄이었다.

영화는 괴물 그 자체보다는 그에 맞서 싸우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다.

봉 감독은 '괴물'(2006)로 블록버스터에 도전한 뒤 '마더'(2009)에서는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마더'는 잔혹한 살인마를 찾아 나서는 노년의 주인공을 내세운 심리스릴러로, 인간의 광기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봉 감독은 '설국열차'(2013)로 할리우드에 진출하며 활동 무대를 넓혔다.

봉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 '옥자'(2017)로 플랫폼적인 확장을 시도했다. 슈퍼돼지 옥자와 산골 소녀 미자의 우정과 모험을 다룬 이 영화 역시 동물과 생명, 자본주의에 대한 봉 감독의 비판의식이 담겼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톡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 도도 2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메카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왼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드라마 특선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마샤와 곰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원더볼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40 세계테마기행 〈낭만 동유럽 1부 로맨틱 프라하〉
21:30 한국기행 〈섬마을 밥집 1부 손 맛보러 가거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55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4:50 세계의 드라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7일(음 4월 23일 甲子)

子 3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48년생 공 들여왔던 것이 분명하게 가닥이 잡힌다. 60년생 가볍게 여긴다면 큰코다칠 수도 있다. 72년생 목적하는 바를 확실히 성취하는 시세이다. 84년생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추이를 관망하자. 행운의 숫자 : 77, 02

丑 37년생 마지막에 이르러 과잉 기대를 하면서 지대한 천착을 보이겠다. 49년생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으니 절반은 이룬 셈이다. 61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73년생 대체로 길조이다. 85년생 셈을 잘 해야 손해 보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60, 38

寅 38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50년생 지연 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성사되는 태양이다. 62년생 절실한 동세이니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한다. 74년생 화젯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니라. 86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90, 88

卯 39년생 행복을 만끽할 운로이다. 51년생 전환하기에는 너무 늦은 길목에 이르렀다. 63년생 일찌감치 긴장했다가 늦게나마 풀리는 양태이다. 75년생 국부적인 면에 대한 추구가 더 낫다. 87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8, 64

辰 40년생 알뜰한 생활 자세가 견고한 기반이 되리라. 52년생 의도하여 왔던 바가 펼쳐진다. 64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6년생 세태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88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44, 24

巳 41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효율성을 제고하자. 65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77년생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진행하면서 흥하리라. 89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만 실기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4, 55

午 42년생 희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자. 54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66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78년생 결정타를 때릴 때가 왔도다. 90년생 형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행운의 숫자 : 62, 35

未 43년생 침착해야만 한다. 55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만 무탈 하리라. 67년생 치열함과 집요함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79년생 부탁하러 갔다가 오히려 청을 듣고 오는 격이로다. 91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동반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6, 16

申 44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국면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56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이니라. 68년생 재고하라. 80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92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92

酉 45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 57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69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81년생 사세의 가닥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에 와 있다. 93년생 성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리라. 행운의 숫자 : 11, 51

戌 34년생 실용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46년생 분명한 책임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58년생 이번에 처리해 버려야 후환이 없어질 것이다. 70년생 중차대한 일이므로 잘 새겨두어야만 한다. 82년생 깊이 고려한 다음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8, 25

亥 35년생 적폐가 보이거늘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47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라. 59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리라. 71년생 예전과 별 반 차이가 없다. 83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자. 행운의 숫자 : 39, 1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